

열풍시대의 문화적 감염력과 감성정치*

—‘나꼼수’, 민주주의, 비평

소영현**

1. 탈정치의 일상과 민주주의 위기의 안팎
2. ‘사사로운’ 방송과 ‘유동하는’ 미디어
3. 일상과 정치 ‘사이’, 문화적 감염력과 감성정치의 가능성
4. 집합적 감성의 비-정치화와 비평언어의 공동화

국문요약

열풍을 불러일으킨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를 대상으로, 〈나는꼼수다〉 열풍 현상이 일상의 층위로 끌어내린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국면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유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했다. 그간 〈나는꼼수다〉에 대한 논의가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혁신과 연동한 미디어 영역의 확장 차원에서 다루어졌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는꼼수다〉가 보여준 문화적 감염력에 대한 분석에 집중해보고자 했다. 언어형식의 틀 깨기가 불러온 효과를 평가하고 ‘잡담/소음’의 활용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면서, 이로부터 적대적선이 뚜렷하지 않는 시대의 비판전략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나는꼼수다〉가 보여주는 전복적 정치성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나는꼼수다〉 열풍이 순식간에 가라앉은 사태를 통해 풍자적 유머의 제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꼼수다〉의 열

* 이 논문은 2008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3)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풍과 급격한 냉각은 비평적 언어의 공동화 현상이 부른 사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어: 〈나는 꿈수다〉, 일상, 정치, 민주주의, 문화, 감성, 감염, 비평, 공/사 영역)

풍자만이 시인의 살 길이다. 현실의 모순이 있는 한 풍자는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모순이 화농하고 있는 한 풍자의 거친 폭력은 갈수록 날카로워진다. 연어맛 고도 쓰러지지 않는 자, 사지가 찢어져도 영혼으로 승리하려는 자, 생생하게 불꽃처럼 타오르려는 자, 자살을 역설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의 자인으로 생각하여 거부하지만 삶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자, 삶의 역학(力學)을 믿으려는 자, 가슴에 한이 깊은 자는 선택하라. 남은 때가 많지 않다. 선택하라, ‘풍자냐 자살이냐’
- 김지하 『풍자냐 자살이냐』

1. 탈정치의 일상과 민주주의 위기의 안팎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한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해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한편으로 대중 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기존의 냉전 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 편향의 정치 구조에 그저 얽혀 있는 외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특권적 기득 구조와 계급 구조는 심화되었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개인의 삶도 황폐화되었다.”¹⁾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말하기 위해 그가 한국사회의 문제로서 지적한 것은 낮은 투표

1) 최장집(박상훈 개정),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초판: 2002), 19쪽.

올로 대표되는 참여와 대표성의 위기, 보수 편향 정치적 대표 체제의 강화, 교육과 계급의 구조화와 연동한 계급간 불평등 구조의 심화, 중앙의 초집중화와 지방의 배제가 야기한 한국사회의 질적 저하의 면모다. 그는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가 심지어 질적으로 더 나빠졌음을 지적했다.²⁾

최장집이 지적한 한국사회의 면모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사회 실상이다.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정치의 혼미와 무능을 틈타 재력과 전문성, 여론 조작력 등을 가진 관료(검찰이나 모피아 등), 재벌, 토건족, 언론집단 등의 정치사회적 힘이 급성장했으며³⁾, 그리하여 사회적 유대의 절연으로 이른바 ‘무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라 부를 만한 성향이 강화되었고,⁴⁾ ‘자기계발에의 의지’라는 새로운 정치적 합리성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⁵⁾ 공공적 생활보장도 치안에 한정된 안전의 의미로(Zygmunt Bauman), 일상의 영위도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의 의미로 치환되었다. 생산과 재생산 구조 전반에서 한국사회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면서 현 체제의 지속불가능성이 역설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전면적 체제 재편이 요청된다는 논의가 진영과 입장 차이를 떠나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일상의 지속마저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힘은 신자유주의

2) 같은 말을 반복하자면, “계급 간 불평등 구조는 훨씬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왔으며, 과거 교육과 근면을 통해 가능했던 사회이동의 기회는 크게 줄어들었다. 어느덧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상층계급 문화가 발전하고 소득과 교육의 기회가 점차 정비례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면서 중산층 상층의 특권화된 사회 부분과 나머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부분 간의 괴리는 심화되었다.”(최장집, 박상훈 개정,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초판: 2002), 8쪽.

3) 김대호, 『2013체제는 새로운 코리아 만들기』, 『창작과비평』 153, 2011. 가을호, 104쪽.

4) 김종업, 『더 나은 체제를 향해』, 『창작과비평』 153, 2011. 가을호, 20쪽.

5)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365쪽.

광풍으로 요약되는 경제적인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적대적 전선이 뚜렷하지 않은 구조적 폭력 시대에 처해 저항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구조적 폭력의 하층을 대체로 개별자로서의 개인이 감당해야 할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장의 위협에 처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 가정하기도 쉽지 않다. 알다시피 국가와 시장은 보다 효율적 이익창출 구조를 위해 오히려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은 경제적인 층위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항하고 더 나은 체제를 상상하기 위해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좀더 역설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정치의 새삼스러운 중요성이 환기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지식인들이 담당해 온 새로운 체제에 대한 상상과는 별도로 일상 경험의 수준에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상상은 가능한 것일까. 이 물음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시장과 국가를 재조직하는 것은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최장집, 262쪽)에 대한 질문일 것인데, 이는 곧 시장과 국가의 재조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인 동시에 획득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속/실현시켜나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최장집은 정당정치 가능성을 환기하고 거기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정당정치 가능성에 관한 한 여기에 어설픈 견해를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판단의 정치공학적 가치와 정당성에 대한 검토는 정치학 영역이 담당할 몫으로 남겨두어도 좋을 것이다. 짚어두어야 할 분명한 점은, 정당정치의 확립과 쇄신에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길이 놓여 있다는 최장집의 판단이 극심해진 일상과 정치의 분리 문제에 대한 그 자신의 고심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이다. 일상과 정치의 분리가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반 없는 정치적 대표 체제와 대표되지 못한 채 부정적 방식으로 저항하는 비투

표 유권자 사이의 균열(최장집, 41쪽)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그가 역설하고자 한 것도 일상을 영위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대의'가 대표성을 획득하지도 그것으로 수렴되지도 못하고 있음에 대한 환기였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일상과 정치의 분리라는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열망이 특정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투여되는 기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가령, '안철수 현상'이나 '나꼼수⁶⁾ 현상'은 한국사회가 보여준 과도하고 기이한 열망 표출의 대표적 사례다. 이를 두고 '안철수 현상'이나 '나꼼수 현상'의 이면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는 거꾸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일상과 정치의 단절면 '사이'에 소통의 길을 내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말로 바뀌 표현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일상과 정치의 '사이'는 결코 공간적 위치성이나 제도 혹은 언어 규약과 같은 단일한 층위의 권역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럼에도 '안철수 현상'이나 <나꼼수> 열풍을 통해 그 '사이'에 대한 일상적 주체들의 분노와 절망의 수위가 높으며 그 '사이'에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즉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열망이 그 만큼 강렬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서 확인해둘 수 있을 듯하다. <나꼼수> 열풍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른' 의견들, 요구와 불만과 개선책 그리고 사회를 움직이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연계성 회복에 대한 관심이 집합적 감성⁷⁾의 형태로 녹아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6)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는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 진행으로 2011년 4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8일까지 총71회(총 33회, 호외 12회, 특별공지 1회, 봉주 25회) 이루어진 팟캐스트 프로그램이다.

7) '집합적 감성'의 차원에서 <나꼼수>와 <나꼼수> 열풍 현상을 다루어보고자 하는 이 글에서 감성/감정(affect/emotion)은 개별적/집합적, 정적/동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 문맥에 따라 혼용한다. 감성/감정 연구에서 적절한 용어법과 의미 구획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간 다수의 연구들이 보여준 지나친 이론화와 용어 세분화 강박은 감

당겨 말하자면, 〈나꼼수〉의 등장과 그것이 야기한 열풍 현상은 의회 내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자 일상적 주체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과 경로가 봉쇄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해야 한다. 〈나꼼수〉는 B급 농담과 잡담을 통해 봉쇄된 통로를 적나라하게 노출했을 뿐 아니라 일상과 정치의 경화된 경계를 뒤흔드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의도와 무관하게 〈나꼼수〉는 한국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현장에서 소통 가능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촉구했던 것이다.

2. ‘사사로운’ 방송과 ‘유동하는’ 미디어

〈판지일보〉에서 제작한 〈나꼼수〉는 김어준(판지일보), 정봉주(전 국회의원), 주진우(시사N 기자, 8회부터 합류), 김용민(시사평론가)이 만들었던 팟캐스트 방송 프로그램이다. ‘가카헌정방송’을 표방하는 B급 정치풍자 뒷담화인 〈나꼼수〉는 핵폭탄의 위력으로 방송 자체에 대한 열광을 이끌고 팬덤을 형성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다.⁸⁾ 〈나꼼수〉에 관한 그간의 논평이나 연구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바, 〈나꼼수〉 열풍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 문맥과 뉴미디어적 맥락 속에서 찾아진다.⁹⁾ 우선 〈나꼼수〉 열풍의 세대적 주체로서 30대가 거론되었던 것은 청년 세대가

성/감정의 의미론적 범주를 해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8) 2011년 7~8월 국내 및 세계 팟캐스트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게 된다.

9) ‘나꼼수’와 ‘나꼼수 현상’을 ‘미디어 퍼포먼스’와 ‘사회극’의 관점에서 접근한 한 학위논문에서 지적되었듯이 〈나꼼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언론/미디어 연구 영역과 문화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좀더 많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안중수, 『미디어 퍼포먼스 ‘나는 꼼수다’와 선거의 사회극』, 한양대 대학원(석사), 2014.

뉴미디어에 친근한 사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¹⁰⁾ ‘기술-법적 규제’의 시차와 지리적 스케일의 적절한 활용¹¹⁾에 기반한 <나꼼수> 열풍은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가상)세계와의 접속을 가능하게 한 스마트 기기의 대중적 보급이 확산된 사정과 마침 선거철을 앞두고 출구를 찾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축적/증폭된 결과라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낸 우연적 사건으로서 <나꼼수>는 스마트폰 이용자 10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팟캐스트 플랫폼의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을 기반으로 회당 최고 7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다. <나꼼수>를 두고 대안적 언론 공간의 형성을 논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¹³⁾ <나꼼수>가 기성 언론이 담당해야 했던 정치 사회적 의제 설정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면서, <나꼼수>가 제공한 뉴스 거리를 기성 언론이 역-전달하는 옷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혁명적 시민저널리즘으로 주류 언론이 하지 못한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10) 김정혜, 『서울 지역 20대 유권자의 팟캐스트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나는 꼼수다> 청취자를 대상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2012.; 이정기·금현수, 『정치팟캐스트 이용이 온·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대의 정치 팟캐스트 이용동기, 정치심리변인, 온·오프라인 정치참여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5), 2012.; 이동희·황성욱, 『정치 팟캐스트 콘텐츠 <나는 꼼수다>의 이용동기와 온·오프라인 정치참여: 서울 지역 2040세대 이용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26, 2013.; 이기형 외, 『청년세대가 진단하는 정치·시사분야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역할과 함의』, 『언론과사회』 21(4), 2013. 등.

11) 권규상, 『정보사회의 권력관계와 대항권력의 형성: ‘나는 꼼수다’를 사례로』, 『정보와사회』 23, 2012, 67-71쪽.

12) 김세욱,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 ‘나꼼수’ 인기 비결』, 『PD저널』, 2011. 9. 9.; 진중권·정재승, 『나꼼수, 독보적이거나 독이거나 VS 이것은 저잣거리 서민들의 이야기』, 『한겨레21』 881, 2011. 10. 12.; 문현숙·권귀순, 『정권의 빗나간 종편사랑, 언론을 벼랑에 내몰다』, 『한겨레』 2011. 12. 27.; 이기형 외, 『“나꼼수현상”이 그려내는 문화정치의 명암』, 『한국언론정보학보』 58, 2012. 5.; 이광석, 『디지털 세대와 소셜 미디어 문화정치』, 『동향과전망』 84, 2012. 봄호 등.

13) 정철운, 『요즘 대세, ‘나는 팟캐스트다’』, 『PD저널』 2012. 1. 9.

받으며 2011년 21회 '민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꼼수>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방송은 미디어 형식 실험에서 나아가 이후 전혀 다른 미디어 환경을 이끄는 토대가 되었다.

<나꼼수>를 대안 언론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¹⁴⁾, <나꼼수>를 두고 대안 언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꼼수>가 미디어의 공/사 구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뉴미디어적 상황은 점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쪽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경계의 불확정성을 현실적 조건으로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따지자면 정치적 국면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굳건한 편이다. <나꼼수>가 가로지른 또 다른 경계는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하는데, 뉴미디어적 환경에서 정치를 논하면서 <나꼼수>는 두 영역 사이의 불균형이 야기한 단절점을 가시화함으로써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은폐하고 있는 제도와 일상의 간극을 가로질러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제안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위문화적 향유 대상이던 '정치에 관한 잡담'을 통해 <나꼼수>는 공적 미디어와 사적 미디어로 구분되는 전통적 미디어 경계를 재고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나꼼수>는 공(공)적 미디어들이 소홀히 다루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지점들에 대한 소개와 고발 혹은 폭로를 통해 공(공)적 미디어의 누락지점을 '보충'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의도와

14) 언론계의 평가로는 이경운, 「정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 등 3개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2012.; 윤태진, 「의도된 '편향적 보도' 대안적 뉴미디어로 영역 구축, 팟캐스트의 등장과 저널리즘 지형 변화」, 『신문과방송』 499, 2012.; 원숙경·윤영태, 「대항 공론장에 관한 연구: <나는 꼼수다>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3), 2012 참조할 것.

무관하게) 오히려 정치권력에 포박되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던 공공적 미디어의 기능 회복을 촉구했다. 말하자면 ‘사사로운’ 방송(1인 미디어)인 <나꼼수>는 ‘공공의/비-공공의’ 미디어 경계를 뒤흔들면서 현실과 청취자의 반응에 재-반응하는 ‘유동하는’ 미디어의 성격을 보여준 것이다.

<나꼼수>를 통해 확인된 ‘사사로운’ 방송의 사회적 파급력은 ‘사사로운’ 방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새 장을 열어젖혔다. 취향을 드러내는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적 영역의 담론을 주도하던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이 앞 다투어 사적 발언의 기회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나꼼수>는 그들을 팟캐스트에 직접 뛰어들게 하는 한편, <나꼼수>의 청취자들을 다양한 팟캐스트 방송에 친숙하게 만들었다. 인터넷 언론인 <민중의소리>가 팟캐스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나꼼수>의 경제편인 <나는 꼼사리다:나꼼살>, 해직 PD와 기자가 만든 뉴스 <뉴스타파>, 파업한 방송사의 노조가 만든 방송 <파업채널 M>, <파업채널 리셋 KBS>, 정당을 기반으로 한 방송 <저공비행>,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 <시사통> 등이 생겨났고 팟캐스트 방송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팟캐스트 방송을 활용하는 생산/소비자의 영역도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이후의 팟캐스트 방송은 대개 ‘사사로운’ 진행 방식의 <나꼼수>의 지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팟캐스트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린 말하기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 형식으로 자리매김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나꼼수>의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꼼수>는 말하자면, 개별적 발언의 통로를 마련한 생산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팟캐스트에 친숙해진 다양한 청취자들에게도 언론과 미디어의 공/사 구분에 대한 다른 감각을 마련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꼼수>에 대한 논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나꼼

수)가 미디어의 공/사 구분에 질문을 던진 것임에 분명하지만, 좀더 세심하게 따져보면 '1인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나꼼수> 전후의 시공간 속에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나꼼수> 이전부터 존재했던 파워블로거나 다양한 SNS의 영향력을 떠올려 볼 때 '1인 미디어'의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의 공/사 구분에 대한 재고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데, 이에 따라 기성 언론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나꼼수> 열풍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 타당성 면에서 재질문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나꼼수>를 대안적 언론으로 위치 지우려는 관점은 <나꼼수>를 정치적 문맥 속에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관점과 톱니처럼 맞물려 있다. 이러한 관점은 <나꼼수>가 권력에 의해 제 기능을 상실한 언론의 빈곳을 채운다는 측면을 인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꼼수>의 의미 혹은 한계를 발견한다. <나꼼수>의 가능성을 논의하지만 이는 <나꼼수>의 정치적 가능성과 한계를 '1인 미디어'의 진화 과정 즉 미디어 존재 방식의 발전이라는 틀로 한정해서 검토하려는 접근법인 것이다.

<나꼼수>는 <딴지일보>의 어떤 진화다. 김어준의 2000년대 프로젝트가 <딴지일보>라면 2010년대 프로젝트가 <나꼼수>다. 그런데 나는 지금껏 <나꼼수>를 칭찬한 적이 없다.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다. ... 비유하자면, <나꼼수>는 정치전문지다. 올해 총선·대선 일정과 맞물리는 특수매체다. 한국의 종합일간지는 삼라만상을 종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청와대·정당·기업·법조 등 권력기관의 동향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즉 '종합뉴스'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권력자 관련 전문 뉴스'를 다뤘었다. <나꼼수>의 영역과 기성 언론의 영역은 서로 겹친다. ... <나꼼수> 열풍은 바로 이 상황에서 비롯한다. 기자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나꼼수>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나꼼수>에 대한 기성 언론의 불편한 심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준 <딴지일보>를 경계하거나 냉소한 기성 언론은 없었다. 반면 <나꼼수>는 끊임없이 기성 언론을 성가시게 한다. 기성 언론이 독점적으로 다루온 이슈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

〈나꼼수〉 열풍의 핵심은 그들이 본격 정치 뉴스를 다룬다는 사실에 있다. 30대 이하에게 〈나꼼수〉는 〈월간조선〉이다. … 〈나꼼수〉가 극우 월간지와 똑같은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월간조선〉과 〈나꼼수〉 모두 기성언론의 기계적·중립적 정치보도에 기갈난 대중에게 뒷이야기, 주요(배후)인물, 사건 사이의 큰 맥락, 맥락을 파악할 비평적 관점, 더 나아가 진위, 선악, 흑백을 분명히 하는 '정파적 관점'까지 제공하면서 독창적인 정치 보도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는 보수와 개혁, 노년층과 청년층, 두꺼운 활자매체와 기동력 있는 팟캐스트 등으로 구분되지만, 각각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¹⁵⁾

기성 언론이 기득권이나 권력층과의 관계 때문에 다룰 수 없었던(결과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이슈들을 〈나꼼수〉가 재활용하고 재맥락하는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관점은 〈나꼼수〉를 기성 언론의 반대편에 위치시키는 동시에 기성 언론과의 쌍구조 속에서 다룬다. 〈나꼼수〉를 기성언론의 짝패로서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의 의미를 충분히 인정한 채로 짚어두자면 〈나꼼수〉에 대한 온당한 평가는 이러한 평가를 자체로 시선을 돌리는 작업에서 비로소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1인 미디어'의 차원에서 〈나꼼수〉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관점은 분석 프레임의 동일성으로 말미암아 〈나꼼수〉의 영향력을 기존의 공/사 미디어 구분 관습 내부로 되돌려 평가하게 한다. 미디어의 공/사 구별 문제는 종종 생산 주체의 공/사 차이 문제로 이해되곤 하지만, 실상 '1인 미디어'의 문제성은 사적 주체가 생산한 미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새로운 유통과 소비의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도출된다. '1인 미디어'의 가치는 영향력과 효과 즉 유통과 소비의 장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적 관점에서 보자면 〈나꼼수〉의 의미를 '1

15) 안수찬, 「30대 이하에게 '나꼼수'는 '월간조선'이다」, 『한겨레』 2012. 3. 5.

인 미디어의 가능성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나꼼수〉를 대안 언론으로 위치지우고자 하는 이러한 분석틀이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유통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한미FTA에 관련하여 여의도 공원에서 콘서트를 연다고 했을 때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주던 80% 부족한 모습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한미FTA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진행자들의 신변잡기와 개인기가 대부분의 시간을 때워 버렸습니다. 그나마 각 정당을 대표한 의원들과 전 의원이 한미FTA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분량이 늘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력이 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게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모인 3~5만 정도의 인원은 그저 나꼼수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회였다면 거기 모였던 사람의 10~20% 정도 밖에는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고 한나라당과 MB정권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동력이 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효종 고소사건 이후 개론의 시청률이 크게 오른 것과 크게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나꼼수가 그냥 웃다가 흩어지는 것이 돼 버렸고,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아무런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루의 휴식이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¹⁶⁾

〈나꼼수〉을 통해 대안언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 시도가 별다른 성취를 얻지 못한 사정은 〈나꼼수〉의 의미를 ‘콘텐츠’를 중심으로 가치화하려는 접근법이 드러낸 한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나꼼수〉를 사적인 이해득실 논리를 떠난 ‘정치적 투사(집단)’으로 위치지우는 시선도 이로부터 배태되었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진화형 1인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면서도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분석틀을 뚜렷

16) SOAR, 〈나꼼수 여의도 콘서트에 대한 한계와 씁쓸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35763>

하게 마련하지는 못한 사정이 만든 결과다. 이는,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간의 <나꼼수>에 대한 비판이 패턴화된 형태로 반복된 원인이기도 하다.

돌이켜보건대, <나꼼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나꼼수>의 사회적 영향력은 두 번의 기억할만한 극적인 전환 국면을 연출했다. 2011년 4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한 <나꼼수>는 방송이 시작되고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예상치 못한 폭발적 반향을 이끌었다. 그러나 '4·11 총선'(2012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을 거치면서 <나꼼수>에 대한 관심은 당혹스러운 정도로 순식간에 냉각되었다.¹⁷⁾ 꾸준히 정치적 이슈를 다루었으며 심지어 점차 더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음에도, <나꼼수>에 대한 반응은 가파른 경사의 꺾은선 그래프를 그렸다.¹⁸⁾ 열광의 원인 못지않게 무관심의 원인 또한 흥밋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우선 짚어줄 점은 두 번의 국면 변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나꼼수>에 대한 관심이 전적으로 정치적 이슈를 다룬 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꼼수> 열풍과 이후의 급작스러운 냉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치적 이슈를 다룬 대안적 언론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이른바 '열풍 시대' 이후로 특정한 대중문화나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이 급작스러운 열광과 냉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임에 분명하다.

17) 이러한 사정이 곧 선거에서의 <나꼼수>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20대의 투표율이 높았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나꼼수>였다. 허재현, 『'감동의 투표율' 64% 서울 20대에 무슨 일이』, 『한겨레』 2012. 4. 13.

18)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2012년 2월까지 예정되었던 한시적 방송임에도 채 1년이 되기 전에 급작스럽게 대다수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3. 일상과 정치 '사이', 문화적 감염력과 감성정치의 가능성

: 정치풍자놀이, 농담/잡담, '씨발'이라는 노이즈¹⁹⁾

〈나꼼수〉 열풍은 〈나꼼수〉가 다루었던 정치적 이슈의 진위 여부보다 청취자들에게 불러일으킨 공감력의 차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감성적 흐름이 사회 내부에서 증폭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감능력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상과 정치의 단절면 사이에 놓인 채 정치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외감에 시달리던 다수의 대중이 〈나꼼수〉를 통해 감정적 위안과 공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꼼수〉는 정치에서 배제된 이들의 분노, 절망, 좌절, 무기력한 감정들이 외화될 수 있는 계기이자 외화된 감정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었던 것이다.²⁰⁾

나꼼수의 흥행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연히 가카. 거기 더해 애티튜드. 쫄지 말라는. 그러한 태도 자체가 절절한 위로가 되는 시대다. 그래서 웃으면서 운다. 그리고 네 사람이 각기 살아온 삶. 자기 콘텐츠는 결국 자기가 삶을 상대하는 태도로부터 나온다. 정보는 그 위에 얹히는 토핑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화법. 자신이 얼마나 옳고 똑똑한 지를 입증하기 위한 화려한 화술이란 의미가 아니라 애티튜드, 정보, 해학, 캐릭터, 진심이 화학결합해 만들어내

19) 지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및 지방 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나꼼수〉 열풍의 원인과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 (『경계와 위계: '나꼼수', 민주주의, 그리고 비평에 관하여』, 『문학웹진 뿔』 2011. 10. 31.; 『경계와 위계, 민주주의와 비평』, 『프랑켄슈타인 프로젝트』 봄아필, 2013, 141~151쪽.) 앞선 분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이후의 방송분에 대한 청취자들의 관심도 변화를 고려하고, 〈나꼼수〉 열풍이 일상의 층위로 끌어내린 한국 민주주의적 위기 국면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유 가능성을 짚어 보면서, 〈나꼼수〉의 문화적 감염력의 의미와 비평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20) Brennan Teresa, *The Transmission of Affect*, Ithaca, Cornell UP, 2004, 서론 참조.

는 함목적적인 전달력.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크게 외쳐도 독백일 뿐이다.(김어준)²¹⁾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안폭력에 기절한 민중을 웃음으로 깨웠다고. MB정권의 꼼수, 욕망에서 비롯된 우스운 본질을 짚어냈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사유화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분개한 거죠. 그런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논리보다 감성이거든요. 감성은 결국 공감이에요.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슬퍼하는지 힘들어하는지 헤아리면서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 응답할 수 있는 미디어운동을 생각해온 거죠.(김용민)²²⁾

〈나꼼수〉에 열광하는 이들은 방송을 개별적으로 찾아 들어야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널리 유포시키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더구나 그들은 〈나꼼수〉에서 이루어지는 ‘뒷담화’ 형식을 일상 차원에서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꼼수’, ‘가카’, ‘깔때기’, ‘꼬깔콘’,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등의 유행어/문장이 생산되었다. 〈나꼼수〉 공식 팬카페가 만들어졌고, 개별 진행자를 위한 팬카페도 개설되었다. 팬미팅이 이루어지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공개콘서트가 열렸다. 〈나꼼수〉가 이끈 폭발적인 반응은 감정을 고리로 하는 문화적 감염력에서 기인했다. 한국적 소셜 미디어가 대개 심리적 연대감이나 감정선을 연결하면서 감성적 연대의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난히 특별한 현상은 아니었지만²³⁾, 그럼에도 〈나꼼수〉의 문화적 감염력과 〈나꼼수〉가 ‘정제되지 않

21) 고재열, 『부르고 싶은 초대 손님? 오직 가카』, 『시사HN』 212, 2011. 10. 15.

22) 홍유진·김용민, 『청춘, 나꼼수로 정치와 소통하다』, 『인물과사상』 164, 2011. 12월 호, 25~26쪽.

23) 이광석, 『디지털 세대와 소셜 미디어 문화정치』, 『동향과전망』 84, 2012. 봄호, 106~107쪽.

은 소리/음성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 간의 연관성 자체는 좀더 주목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해야 한다.

〈나꼼수〉가 마련한 공감력의 위력은 상당 부분 언어형식의 틀 깨기가 불러온 효과에서 찾아진다.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의 효과 분석이 〈나꼼수〉의 의미 해명의 관건인 것이다. 〈나꼼수〉 열풍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하중이 아니라 그 하중을 단번에 날려 버리는 전달방식에 놓여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꼼수〉의 진행자들은 정치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시사적 이슈를 다루면서도 ‘뒷담화’ 형식으로 비속어를 뒤섞어 순서도 맥락도 없이 마구 떠들어대는 예측불허의 방식을 취했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잡담 형식이 그러하듯이 이야기는 특정한 주제 없이 여기서 저기로 두서없이 흘러가고, 시간제한이 따로 없기에 그날그날의 사정에 따라 잡담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비규칙-탈규칙으로 일관했다. 시시껄렁한 ‘뒷담화’와 ‘팩트’와 ‘팩트’ 사이를 이어붙인 근거 없는 ‘소설’, 배틀처럼 이어지는 ‘자랑질’이 사실상 〈나꼼수〉를 틀 지우는 근간형식이었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규칙 없이 마구 떠드는 불친절한 ‘잡담/소리’는 흥미롭게도 ‘애청자-중독자’에게 금기와 성역 없는 말놀이의 해방감을 제공했다. 가령, 〈나꼼수〉 1회는 ‘BBK 사건’을 ‘서태지·이지아 이혼 사건’과 연결시켜 그럴 듯한 ‘정치소설’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진행자들은 그들의 잡담이 골방 수다일 뿐임을 강조하는²⁴⁾ 방식으로 미디어 윤리를 가볍게 따돌린다. 그들 스스로 매번 강조했듯이 〈나꼼수〉는 ‘객관적이

24) 돌이켜보건대, 이 소설쓰기 잡담을 들으면서 전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현실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나꼼수〉 열풍에 기입된 우연적(아니 필연적) 기폭제였다.

고 공정한 태도로 정치적 의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카에게 헌정하는 방송’이라는 뚜렷한 의도 아래에서 정치적 의제를 다루는 서로 다른 캐릭터를 만들고 진화시킴으로써(『경계와 위계』) 정치풍자에 리얼버라이어티쇼 형식을 결합시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 자체로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묻고 오면서 예측불허의 방식으로 일상과 정치 ‘사이’에 길을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말과 욕설, 저속한 표현 등을 통해 정치를 둘러싼 경건하고 엄숙한 이미지를 뒤집고 일상과 정치의 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꼼수>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점에서였다.

패러디송과 간주곡 등 다양한 형식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나꼼수>는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오락적 성격도 갖추고 있었다. ‘팩트’와 ‘소셜’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안 <나꼼수>는 정치풍자 특유의 무거움을 견어내고 ‘잡담’을 ‘잡담’이자 ‘정치풍자-놀이’의 국면으로 이끌었다. 잡담들 사이의 웃음소리는 정치담론의 무거움에 대한 조롱의 효과를 발휘했으며, 탈권위적 입장에 입각해 정치를 일상 층위로 끌어내림으로써 정치와 대중적 시선의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야기한 대중의 소외감이 위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쫄지마 씨발’이라는 일종의 추임새는 <나꼼수>의 문화적 전복성을 압축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바, 이 추임새를 통해 <나꼼수>는 정치에서 소외된 일상적 주체를 위로하고 또 정치로의 새 길을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꼼수>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잡담/소음’의 효율적 활용과 무관하지 않다. 기성의 청각 틀에서

쉽게 포착되지도 규정되지도 않는 ‘잡담/소음’은 적대전선의 수립이 쉽지 않는 시대에는 유용한 비판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꼼수〉에서 ‘잡담/소음’의 예기치 않은 효력은 유용한 비판전략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나꼼수〉가 ‘소리/음성’을 통해 ‘말하는 방식’으로 일으킨 효과는 체제 균열의 지점에 대한 가시화라고 할 수 있으며, 매끈하게 봉합된 그 균열의 지점을 일상적 주체들에게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달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마구 떠들어댄다’는 행위의 의미에 좀더 유의해보면, 〈나꼼수〉에서 통제가 쉽지 않은 소음이자 거슬리는 잡음으로서의 ‘잡담/소음’이 만들어낸 전복성은 기성의 방식과는 다른 지점에서 정치적 효력을 마련해낼 수 있는 방법적 가능성으로서 유의미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각-잡고’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며 그저 ‘뒷담화’를 ‘마구 떠들어대면서’ 깔깔거렸을 뿐임에도,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모두를 재판에 회부시킬 정도로 그들의 ‘마구 떠들기/잡담’에 대한 권력층의 반응은 신경질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나꼼수〉는 자체로 ‘깔깔거리면서’ 즐기면 되는 ‘잡담’에 불과했지만 그저 ‘잡담’만은 아니기도 했던 것이다. 기득권과 권력에는 신경질적인 노이즈로 작용하면서 일상적 주체에게는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이 바로 〈나꼼수〉의 문화적 감염력의 효과인 것이다.

4. 집합적 감성의 비-정치화, 비평언어의 공동화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의 실질을 파악하고자 했던 데이비드 리즈먼의 시도(『고독한 군중』)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메스트로비치가 지적했던 ‘탈감정사회’의 도래는 전지구적으로 강화되는 불가역의

현상임에 분명하다. 전지구적 시장만능주의의 치명적 결과는 “문화적 빈곤이 아니라 감정적 빈곤”이라고 할 때, 경제만능주의 사회의 도래와 함께 추상화되고 경화된 감정만 남으면서 감정의 소통이 기계화되고²⁵⁾ 감정은 계급적 위계에 따라 사회적으로 착취될 뿐²⁶⁾이라는 지적은 비단 미국사회에만 해당하는 진술이 아닌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자면, 규격화된 감정의 틀 아래로 흐르던 사회적 감정의 실체를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나꼼수〉의 의미는 새삼 강조되어도 좋을 듯하며, 그것이 야기한 사후적 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집합적 감성과 그것의 움직임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감성이 구성원의 행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토대로, 감정과 정치의 관계성에 기초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⁷⁾

〈나꼼수〉 열풍은 형성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약화되었다. 탈경계, 탈권위의 ‘태도’를 취했던 〈나꼼수〉의 ‘비키니시위 논란’(2012년 1월)²⁸⁾과

25) Stjepan G. Mestrovic(박형신 옮김), 『탈감정사회』, 한울아카데미, 2014, 65쪽.

26) Alie R. Hochschild(이가람 옮김), 『감정노동』, 이매진, 2009, 33~37쪽.

27) 감정사회학과 감성정치의 학적 요청에 대해서는 박형신·정수남,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이론』 15, 2009.; Jack Barbalet 엮음(박형신 옮김), 『감정과 사회학』, 이학사, 2009 등 참조. 특히 집합적 감성과 정치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관해서는 Mabel Berezin, 「안전 국가: 감정의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감정과 사회학』(Jack Barbalet 엮음, 박형신 옮김, 이학사, 2009.); Mabel Berezin, 「감정과 정치적 정체성」, 『열정적 정치』(Jeff Goodwin & James Jasper & Francesca Polletta, 박형신·이진희 옮김, 한울, 2012.) 참조.

28) 「나꼼수 비키니 논란 가속」, 『한겨레』 2012. 1. 30.; 김어준 인터뷰, 『한국일보』 2012. 2. 2. 2012년 1월 20일 비키니시위 사진이 업로드 된 이후로, 2012년 1월 26일에 언론에 사진이 보도되면서 ‘비키니시위 논란’이 공론화되었고 1월 27일 주진우 기자의 접견 민원서신 문구가 트위터에 공개되자 다음날부터 공지영, 진중권 등 〈나꼼수〉 지지자들조차 〈나꼼수〉 측에 공식적 사과를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폭넓은 논란거리가 되었다. 2월 6일 선언된 삼국카페(〈소울드레서〉, 〈화장발〉, 〈쌍화차코코야〉)의 지지철회 공동성명은 〈나꼼수〉의 대중적 영향력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계기였는데, 2

〈나꼼수〉 일원이 현실 정치에 개입한 사건(2012년 4·11 총선 출마 선언)²⁹⁾을 계기로 순식간에 〈나꼼수〉는 대중의 관심 시야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나꼼수〉 열풍이 〈나꼼수〉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 영역을 개척하게 한 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나꼼수〉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사라진 격렬의 국면에서 뚜렷해진 것은 “쾌락의 농담공동체”가 드러낸 “현실과 가상 사이의 간극”³⁰⁾이었다. 〈나꼼수〉 열풍이 잦아든 현상을 두고 점차 뚜렷해진 팟캐스트의 정파성과 편향성의 문제로 치환하거나 사건 자체의 의미나 사건 발생 이후 〈나꼼수〉 측이 보여주었던 부적절한 대응방식의 문제로 환원하는 방식, 이에 따라 〈나꼼수〉의 편향성과 선정성 혹은 음모론적 시각의 위험성이 가시화된 계기로 이해하거나 그러한 평가가 〈나꼼수〉에는 없는 요소들에 대한 윤리적 판정에 불과하다는 옹호성 평가(‘그럼에도 난 〈나꼼수〉를 응원한다’ 식의 평가) 양자는³¹⁾ 〈나꼼수〉 열풍이 급격하게 잦아든 현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는 거리가 먼데, 그것은 논란이 된 두 사건을 포함해서 이후 불거진 김용민

월 10일 김어준이 공식적 사과 없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김수진 외, 『농담과 비키니, 나꼼수 사건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선』, 『페미니즘 연구』 12(1), 2012.

29) 〈나꼼수〉 진행자의 1인인 김용민이 제19대 총선 서울 노원구 갑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사건이다. 『‘나꼼수’ 김용민, 출마 결심한 이유는?』, 『한겨레』 2012. 3. 14.

30) 김수진, 『아이디 주체(ID Subject)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 ‘나꼼수-비키니시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2), 2013, 11쪽.

31) 유숙열, 『나꼼수의 ‘음담패설’…김어준은 어디로 갔나』, 『오마이뉴스』, 2012. 2. 4.; 이영주, 『〈나꼼수〉를 다시 말하기』, 『문화과학』 70, 2012.; 오경미, 『나꼼수 비키니시위 논쟁, 이렇게 끝나도 될까?』, 『여/성이론』 26, 2012.; 김수진, 『아이디 주체(ID Subject)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 ‘나꼼수-비키니시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2), 2013. 여기에는 “뉴미디어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의 상호관련성” 문제(김수진, 2쪽), “연쇄시위를 통해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여성의 정치적 표현(신체)을 시각적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본 남성 중심적 시각”의 문제가 뒤얽혀 있다.(오경미, 137쪽)

의 ‘막말파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꼼수〉에 대한 열광의 이유가 곧 〈나꼼수〉에 대한 비난의 근거였음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논점이 변경되는 장면 자체다. 탈권위와 탈경계의 의미망 속에서 이해되었던 〈나꼼수〉의 비공식적 언어문법이 순식간에 페미니즘과 현실 정치라는 문맥 속에서 재맥락화되고, 그와 맞물려 그 언어문법은 진보/보수라는 기성의 정치적 프레임 내부로 밀려들어가 전복적 의미를 상실하고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나꼼수〉 진행자들의 입장에서 ‘잡담’과 ‘낄낄거리’는 태도의 다른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었던(이해했을 수도 있는) ‘비키니시위’ 논란과 ‘김용민의 출마 선언’이 더 이상 그들의 의도대로 의미화되지 못하고, 두 사건은 오히려 현실의 진영 논리를 〈나꼼수〉 깊숙이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나꼼수〉는 스스로 넘고자 했던 바로 그 권위와 엄숙성의 세계로, 그것이 유지되는 경계 내부로 밀려들어가게 된 것이다. 왜 〈나꼼수〉가 놓인 정치적 프레임은 순식간에 변해버린 것인가. 그것은 강고한 기성정치 프레임의 복원력 때문인가 〈나꼼수〉 자체로부터 내발한 문제인가.

분명한 것은 〈나꼼수〉를 둘러싼 관심의 급격한 변이를 〈나꼼수〉의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한국사회에 미친 〈나꼼수〉 현상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나꼼수〉 열풍은 영화 〈변호인〉(2013)이나 〈명량〉(2014), 〈국제시장〉(2014)에 쏠렸던 관심이나 ‘안철수 현상’, ‘일베 소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릴레이’,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애도 열풍’과의 상관성, 좀더 정확하게는 그러한 열풍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태와의 상관성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집합적 감성이야말로 바로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

삶을 구성³²⁾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나꼼수〉에 대한 관심의 추이를 시대 감정의 집합적 행보라는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꼼수〉 열풍을 통해 정치/체제 내부로 흡수되지 못한 집합적 감성이 어떻게 다른 세계와 체제를 지향하게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집합적 감성이 가진 일면, 새롭게 열린 가능성에 결코 손쉽게 타협하지 않는 신중함에 대해서는 〈나꼼수〉에 대한 급격한 무관심이 단적으로 입증해준다고 해야 한다.

〈나꼼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야기한 일상과 정치의 간극을 가시화했으며, 그 간극을 인지하는 집합적 감성의 흐름에 주목하게 했다. 그간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일상 층위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열망이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개혁이나 그간의 보수/진보 진영 논리와 같은 기성의 방식과 틀에서 맞춘 형식을 마련하지 못하고 들끓는 에너지가 되어 유통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했다. 〈나꼼수〉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실제에 대한 비판적 질문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기성 정치와 정치적 담론의 엄숙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이 불러온 호응을 통해 역설적으로 입증된 바다. 〈나꼼수〉는 정치적 민주화가 일상적 민주화로 지속되고 확장되었는가를 묻는 결쇠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나꼼수〉에 열광했던 집합적 감성의 중심에는 〈나꼼수〉의 언어 활용과 그것이 불러온 기성 언어문법을 향한 전복성이 놓여 있었다. 그 전복성이 집합적 감성의 흐름으로 가시화된 정당정치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풍자의 상상력이 풍자 대상이 그어놓은 한계선 바깥에 대한 상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한계선에 대한 환기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환기의 효력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32) Mabel Berezin, 『안전 국가: 감정의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감정과 사회학』(Jack Barbalet 엮음, 박형신 옮김), 이학사, 2009, 69쪽.

이며, 〈나꼼수〉를 계기로 이후로 한국사회에 뚜렷하게 가시화된 집합적 감성의 역동성이 갖는 의미를 축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풍자적 유머가 만들어내는 경계의 유연성이 새로운 틀로 대체되지 못할 때 그 유연성이 쉽게 경화되고 마는 풍자적 유머의 제한적 효력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실상 〈나꼼수〉에 대한 관심의 급격한 소멸은 바로 이 지점, 실정적(positive) 대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현실의 진영 논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풍자적 비평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언론이 막힌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 놓인 이들에게 〈나꼼수〉가 통쾌함과 위안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의 삶이 ‘정치풍자-놀이’로도 위로될 수 있을 만큼 삶 전체가 위축되어 있으며 상시적 비판의 가능성이 일상의 국면에서 협소하게만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나꼼수〉 열풍과 급격한 냉각을 통해 입증되었듯이 풍자적 유머의 제한성은 〈나꼼수〉가 ‘현재에 기반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미래를 불러오기 위한 비판³³⁾’으로서의 기능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비평적 언어의 공동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고도 할 수 있다. 집합적 감성을 통한 일상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게 했음에도 〈나꼼수〉 열풍과 급격한 냉각은 비평적 언어의 공동화 현상이 부른 사태임에 분명하다. 분출된 집합적 감성이 정치/체제 구현으로 수렴될 수 없던 심층 원인이 비평적 언어의 공동화 현상에 놓여 있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3) Michael Foucault, 이상길 옮김, 『비판이란 무엇인가』, 『세계의문학』 76, 1995년 여름호, 민음사, 125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나는꼼수다〉

김어준·정봉주·주진우·김용민, 『나는 꼼수다—episode 1, 2』, 시사HN북, 2012.

2. 논문과 단행본

구난희 외, 『열풍의 한국사회』, 이학사, 2012.

권규상, 「정보사회의 권력관계와 대항권력의 형성: '나는 꼼수다'를 사례로」, 『정보와사회』 23, 한국정보사회학회, 2012, 35~79쪽.

김대호, 「2013체제는 새로운 코리아 만들기」, 『창작과비평』 153, 2011. 가을호, 92~115쪽.

김수진 외, 「농담과 비키니, 나꼼수 사건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선」, 『페미니즘연구』 12(1), 한국여성연구소, 2012, 219~253쪽.

_____, 「아이디 주체(ID Subject)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 '나꼼수-비키니시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2), 한국여성학회, 2013, 1~38쪽.

김종엽, 「더 나은 체제를 향해」, 『창작과비평』 153, 2011. 가을호, 15~37쪽.

김홍중, 「사회적인 것의 합정성(合情性)을 찾아서: 사회 이론의 감정적 전환」, 『사회와이론』 23, 한국이론사회학회, 2013, 7~48쪽.

문현숙·권귀순, 「정권의 빛나간 종편사랑, 언론을 벼랑에 내몰다」, 『한겨레』 2011. 12. 27.

박형신·정수남, 「거시적 감정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이론』 15, 한국이론사회학회, 2009, 195~234쪽.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소영현, 『프랑켄슈타인 프로젝트』, 봄아필, 2013.

안수찬, 「30대 이하에게 '나꼼수'는 '월간조선'이다」, 『한겨레』 2012. 3. 5.

안종수, 「미디어 퍼포먼스 '나는 꼼수다'와 선거의 사회극」, 한양대 대학원(석사), 2014.

오경미, 「나꼼수 비키니 시위 논쟁, 이렇게 끝나도 될까?」, 『여/성이론』 26, 여이연, 2012, 137~148쪽.

원숙경·윤영태, 「대항공문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나는 꼼수다〉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3),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49~81쪽.

이경운, 「정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동아일보·한

- 국일보·경향신문 등 3개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2012.
- 이광석, 『디지털 세대와 소셜 미디어 문화정치』, 『동향과전망』 84, 2012. 봄호, 102~129쪽.
- 이기형 외, 『“나꼼수현상”이 그려내는 문화정치의 명암: 권력-대항적인 정치시사콘텐츠의 함의를 맥락화하기』, 『한국언론정보학보』 58, 한국언론정보학회, 2012. 5, 75~105쪽.
- _____, 『청년세대가 진단하는 정치·시사분야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역할과 함의: <나는 꼼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21(4), 성곡언론문화재단, 2013, 46~106쪽.
- 이동희·황성욱, 『정치 팟캐스트 콘텐츠 <나는 꼼수다>의 이용동기와 온·오프라인 정치참여: 서울 지역 2040세대 이용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26, 2013, 141~175쪽.
- 이영주, 『<나꼼수>를 다시 말하기』, 『문화과학』 70, 문화과학사, 2012, 319~333쪽.
- 이지효, 『대안매체에 대한 주류매체의 뉴스 프레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이지효, 연세대 대학원(석사), 2013.
- 조주현, 『보편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실천적 전환』, 『사회와이론』 23, 한국이론사회학회, 2014, 7~42쪽.
- 최장집(박상훈 개정),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초판: 2002)
- 한병철, 김태환 옮김,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 허재현, 『감동의 투표율 64% 서울 20대에 무슨 일이』, 『한겨레』 2012. 4. 13.
- 홍유진·김용민, 『청춘, 나꼼수로 정치와 소통하다』, 『인물과사상』 164, 2011. 12월호, 15~34쪽.
- Alie R. Hochschild, 이가람 옮김, 『감정노동』, 이매진, 2009.
- Brennan Teresa, *The Transmission of Affect*, Ithaca, Cornell UP, 2004.
- Gabriel Tarde, 이상률 옮김, 『여론과 군중』, 지도리, 2012.
- Jack Barbalet, 박형신 옮김, 『감정과 사회학』, 2009.
- Jeff Goodwin & James Jasper & Francesca Polletta, 박형신·이진희 옮김, 『열정적 정치』, 한울, 2012.
- Michael Foucault, 이상길 옮김, 『비판이란 무엇인가』, 『세계의문학』 76, 1995년 여름호.
- Stjepan G. Mestrovic, 박형신 옮김, 『탈감정사회』, 한울아카데미, 2014.

Abstract

Cultural Contagion and Affect Politics in the Fever Era
: “Naggomsu”, Democracy, Criticism

So, Young-Hyun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d an podcast broadcasting “*Naneun Ggomsuda*” and “*Naneun Ggomsuda* phenomenon” under the following two premise: “*Naneun Ggomsuda*” and “*Naneun Ggomsuda* phenomenon” made a democratic crisis in the level of everyday life clearly, and also showed new possibilities for the democracy in Korea. This paper aimed to analyze the meaning of “*Naneun Ggomsuda*” in the context of cultural contagion instead of in the context of innovation of new media technologies linked with an extension of the media a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ocused on the effect of destroys the language convention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gossip/noise’ in “*Naneun Ggomsuda*”. I tried to find out a proper criticism strategy from “*Naneun Ggomsuda*” in this era of uncertainty. “*Naneun Ggomsuda*” has been shown the subversive politics. But It confirmed the limitations of the satirical humor by rapid cooling of the “*Naneun Ggomsuda*” phenomenon. Finally, rapid heating and cooling of “*Naneun Ggomsuda*” phenomenon confirmed the emptiness of critical language in this society.

(Key words: <Naneun Ggomsuda 나는 꿈수다>, everyday life, politics, democracy, culture, affect, contagion/transmission, criticism, public/private sphere

투고일 : 2015년 3월 11일 투고
심사일 : 2015년 4월 4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5년 4월 12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5년 4월 15일